1960.5

5.1절 야회

김 철

춤을 추네 춤 추네
　5. 1절 야회,
구락부 넓은 뜰에
　모두 모여 춤 추네.

하늘엔 붉게 붉게
　공장의 불'빛,
땅 우엔 울긋불긋
　꽃 전등 밝은데,

아버지 어머니들
　한가운데 돌아가고
형님 누나들도
　신'바람 났네.

춤을 추네 춤 추네
　5. 1절 야회,
손'벽 치며 얼씨구.
　장단 맞춰 절씨구.

소년단 우리들이
　팽글팽글 돌아가면
유치원 동생들도
　웃읍다고 짝짝꿍.

사회주의 봉우리
　또 하나 넘기위해
천리마 타고 달리는
　근로자 아저씨들.

아버지 어머니들
　새공장 세우시고
형님과 누나들
　기계를 돌리시니

쇠'물은 밤 낮으로
　흘러 흐르고
농기계도 우룽우룽
　달려 나왔네.

우리들도 후'날엔
　공장의 주인
어른들을 교대할
　나라의 주인

보아라 저 하늘에
　불타는 노을
넉타이 더욱 붉게
　물 들여주니

아! 즐겁고 기운나네
　5. 1절 야회.
항상 준비하자!
　당의 아들 딸.

소년단 1960년 5호 내용

삶의 길을 찾아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

따스한 봄'볕을 담북 받으며 양지 바른 잔디 밭에 한 물커니의 아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선생님에게서 미제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해 일어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호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모두들 싸우는 남반부 동포들을 생각하며 흥분된 얼굴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번 마산 인민들이 들고 일어선 시위에 뒤'이어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에서 벌써 수십일째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5년간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발굽 밑에서 억눌리고 시달릴 대로 시달리는 가운데서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이제 드디여 터진 것입니다.》

영남이도 아래 입'술을 지긋이 깨물어 선생님의 얼굴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남조선 마산에 있는 할머니의 생각과 함께 지난날 남조선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겪으셨다는 비참한 이야기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남조선을 오늘과 같은 생지옥으로 만든 것은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배입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가 아니였더라면 우리 나라는 벌써 오래 전에 통일 되였을 것이고 남조선 어린이들도 동무들과 어깨 겯고 학교에 다니게 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은 비참한 사태가 벌러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외국 군대를 물려 가게 하고 조선 사람끼리 총선거의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하여 한겨레가 행복하게 한데 모여 살 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우리의 이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끝내 전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가 죽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와 마을, 그리고 귀중한 재산들이 불에 탔습니까!》

선생님도 치가 떨리시여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무들의 눈은 원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하여 이글거렸습니다. 전쟁 시기 원쑤놈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수남이는 자기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전쟁으로 우리 나라를 몽땅 삼켜 보려다가 코가 깨진 미제는 끝내 무릎을 꿇고 정전 협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도 미제는 또 다시 정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계속 물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남 북조선간에 서로 물건도 왔다 갔다 하게하고 편지 거래도 하게 하자고 여러 번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북반부에서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는 물자들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의 실업자들과 고아들을 모두 받아 들이겠다고까지 하였지만 놈들은 모두 듣지 않았습니다.

일할래야 일자리가 없고 살래야 살'길이 없는 오늘 남조선에서는 군대와 경찰만이 득실거리고 인민들의 자유라는 것은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을래야 참을 수 없

고 견딜래야 견딜 수 없어 남조선 인민들은 드디여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죽느니 보다는 일어서 싸우자고 말이지요. 그리하여 지난 4월 26일 끝내 리승만을 몰아내고야 말았지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말씀했을 때 소년단원들은 모두 통쾌한듯 손'벽을 쳤습니다.

《지금 극도로 당황해난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해서라도 제놈들의 식민지 통치를 계속해 보려고 리 승만 정권을 대신할 새로운 괴뢰정부를 꾸며 낼 간교한 술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놈들은 지금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시켜 〈국무원〉의 사람들을 갈고 헌법을 뜯어고쳐 그전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틀어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내각에서 책임〉지게 하며 〈민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굼때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놈들은 지금 〈과도정부〉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에다 역시 제놈들의 빵부스러기로 길러 낸 허 정이라는 놈을 그의 우두머리로 내세웠습니다.

허 정이라는 놈도 리승만과 쌍둥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모두 《하하하……》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놈들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지난 4월 2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에 뒤'이어 4월 27일 평양에서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모임을 열고 또다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리 승만 괴뢰정부가 무너진 오늘 남조선에서는 〈국무원〉과 〈민의원〉을 비롯해서 밑에 이르기까지 괴뢰 통치 기구를 모두 해산시키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과학 문화인, 병사, 기업가, 상인대표로 되는 림시 행정 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괴뢰 경찰을 즉시 해산시키고 인민들의 경찰을 조직해서일을 보게하며 리 승만은 잡아 인민 재판에 넘겨야합니다. 그리고 미제를 물러가게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때까지 끝가지 싸워야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당 중앙 위원회 호소문에서 내놓은것 처럼 남조선에서 벌려진 일을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이 모여앉아 의논하며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도록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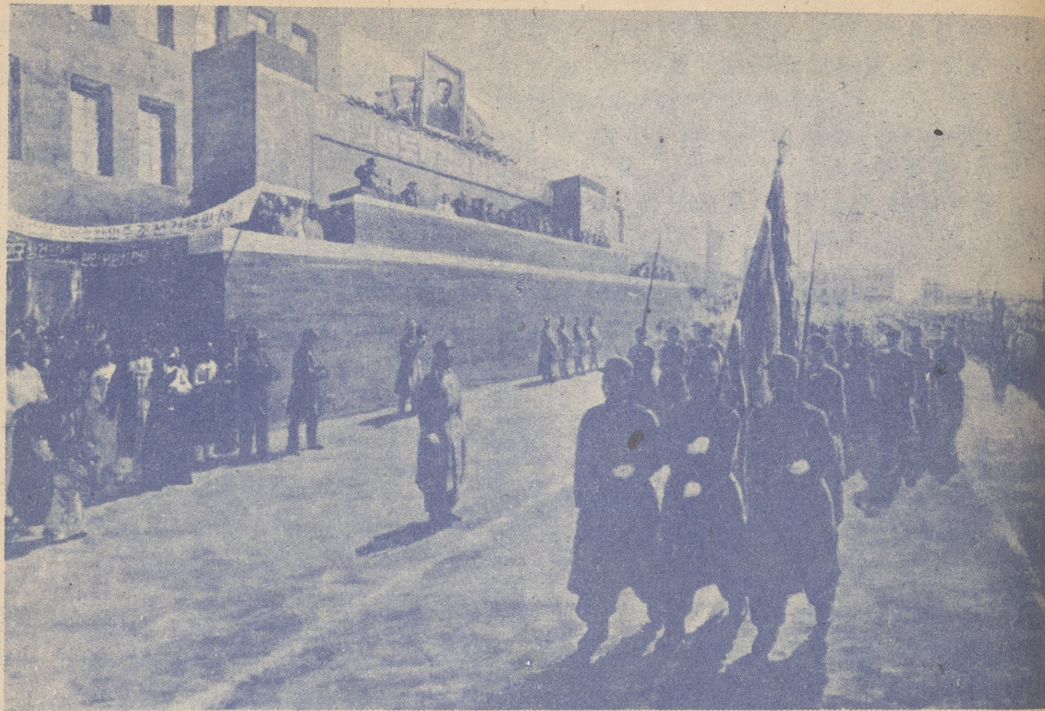
지금 우리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을 도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나섰습니다.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온세계 인민들도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에 한결같이 지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끝으로 우리들도 힘을 모아 싸우는 남조선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동무들을 힘껏 도우며, 한편 공부도 더 잘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도와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할 더 많은 밑천을 만드는 일에 이바지 하자고 하셨습니다.

로동당 만세!

(제 6 회)

조선 인민군 창건 열병식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장

박 세 영

나서부터 영웅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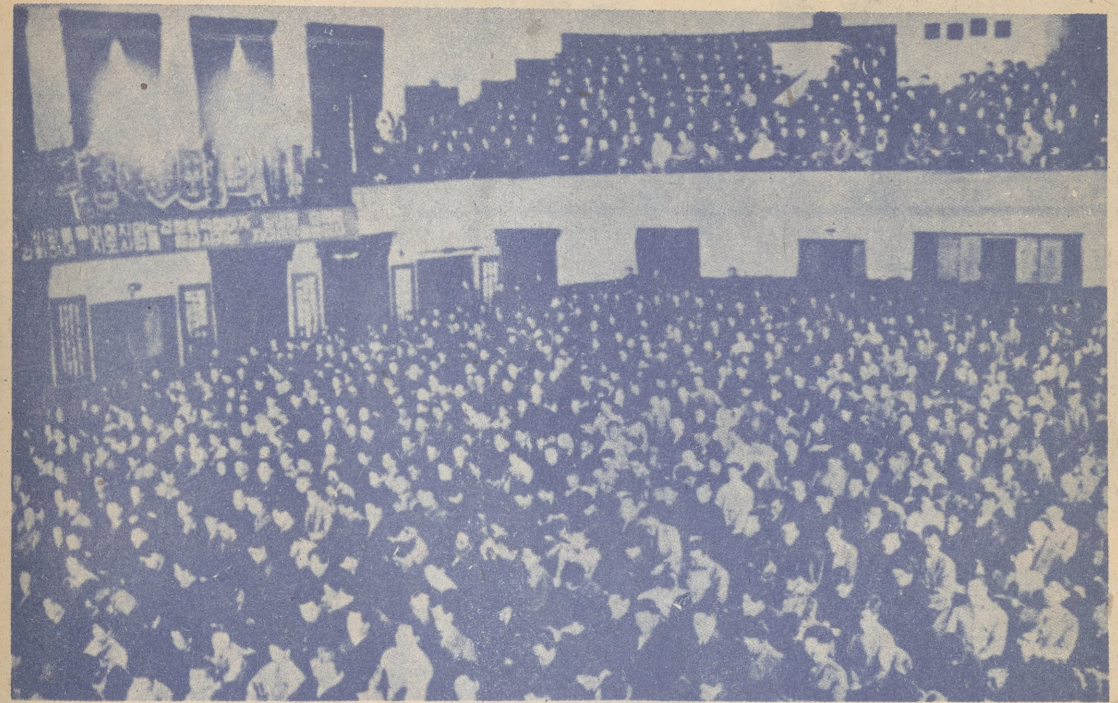
하얗게 눈덮인 거리에
꽃보라가 눈처럼 날리였다.
무지개처럼 테프가 날려 들었다.
인민 군대들 맞는 사람들 마음이였다.

인민이 준 총을 비껴메고 앞에서도 척척.
따바리를 가슴에 메고 뒤에서도 척척.
땅크도 포차도 하늘 땅을 울리였다.
원쑤들을 호령하는 백두산의 웨침처럼.

그러기 인민 군대는 나서부터 영웅
군대란다.
왜놈에게 짓밟히여 우리 강산이 울때.

한 자루 총을 대포삼아 싸운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가 바탕됐으니.

얼마나 믿어우냐 저리 새 무장 갖추고
원수님 애국 전통을 피'줄에 이어 받았
으니
조국과 인민을 목숨보다 애끼는 군대.
인민 군대는 당의 군대, 영웅의 군대란다.

눈부신 혁명의 열매를 몸보다 소중히
원쑤와 싸울 때는 천사람의 힘 솟으
리니,
장하다, 당이 마련한 인민의 군대.
우리 아낄 것이 없구나, 이들을 위해서는.

김 일성 원수님 두리에

쌓 올린 평화로운 민주 기지는 꽃피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튼튼한 밑천으로,
미제 침략자들이 갈라논 우리 조국을
하루 바삐 평화롭게 통일시킬 힘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 형제 오빠 누이들
팔년 가물에 비보다도 더 그리운데,
미제는 남조선 단독 정부 꾸미련다.
매국 도당 늙은 허재비를 내세우련다.

남조선 형편은 더 없이 어지러울 때
로동당 제 2차 전당 대회는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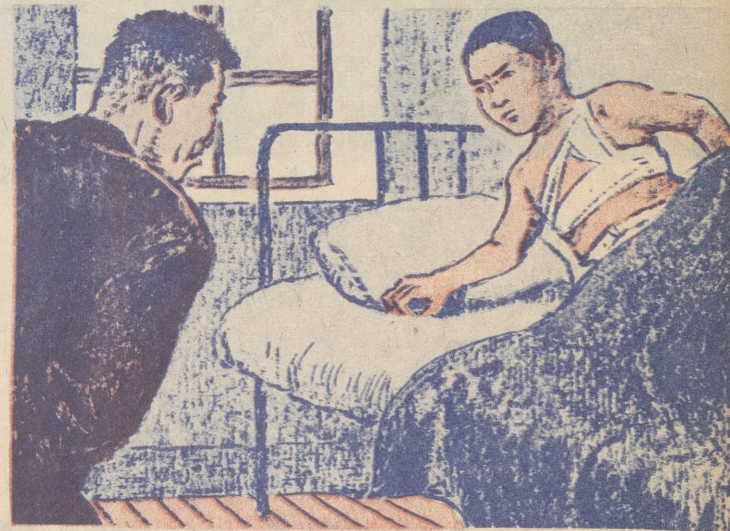
민주주의로 뭉친 힘 모두 한데 모아
나라의 평화 통일과 독립을 이룩할 것을.

우리 나라에서 외국 군대는 다 나아가고
참다운 민주 총선거를 거쳐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세울 것을,
그런데 남조선 단독 선거가 될말이냐.

조국을 갈라 노려는 놈들 흉악한 놀음은
인민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리
당은 산악 처럼 인민 속에 뿌리박고,
원수님 두리에 우리는 철석 같이 뭉쳐
나간다.

①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박 재관 형님과 최 옥순 누나들이 공작을 나간 사이에 왜놈들이 집에 달려 들었다. 방 안에는 원주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뒤 문을 차고 몸을 피하려 하였다. 순간 요란한 총 소리가 울렸다. 원주가 비칠거렸다. 한쪽 어깨를 총알이 뚫고 나간 것이다.

② 불행히도 원주는 왜놈 헌병대에 붙들려갔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낯설은 어떤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래 정신이 좀 들었니?》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앗!》 원주는 하마트면 놀랜 소리를 지를 번했다. 그는 보기만해도 징그러운 왜놈의 특무 리 덕삼이였던 것이다.

③ 리 덕삼은 맛 있는 과자며 과일을 련신 날라 오며 조직의 비밀과 아버지의 간 곳을 대라고 얼려대였다. 《너는 철 없는 어린 애야! 때문에 우린 너를 이렇게 병도 고쳐 주고 또 앞으로는 학교에도 보내준다. 네가 아는 대로만 말하면 그만 이거든!》

《난 몰라요!》 원주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④아무리 얼리고 어루만져도 입을 열지 않는데 약이 올른 왜놈들은 그를 병원에서 끌어내여 고문장으로 데려 갔다.

아물려하던 상처는 놈들의 갖은 고문으로 다시 도져 피가 흘러 내렸다. 그래도 원주는 한마디 말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⑤ 얼음장 같은 찬 바닥에 쓰러진 원주는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온 몸은 쑤시다못해 심장까지 저려나군 했다. 그러나 원주는 항상 《나는 김 일성 장군의 어린 전사다. 혁명을 위해 싸우는 아동단원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고통을 참고 이겼다.

⑥ 원주는 이틀 동안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놈들은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을 위해 몸바쳐 나선 원주의 굳센 마음은 굽힐 수가 없었다.

그는 감방 안에서도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꼭 깨물고 아픔을 참았다.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왜놈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이였다.

혁명임무

글 원도홍　　　그림 김 덕상

(전호의 계속)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낮이였는데 내 머리맡에는 명철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아저씨!》

하고 환성을 올리였다. 그바람에 나는 더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뭐가 뭔지 정신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내 주위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명철아, 여기가 어디냐?》

나는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마른 나무껍질처럼 팟팟해진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고 명철에게 물었다.

《여긴 밀림 속이야요.》

오래'동안 밀림 속에서만 살아 온 나는 명철이의 대답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 밀림 속에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것은 밀림이 우리 빨찌산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늑한 집이기 때문이였다.

나는 차차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명철이에게 묻는 과정에서 지난 일을 알게 되였다. 내가 철교로 들어 가다가 놈들의 기관총알에 맞아 쓰러진 것도, 그리고 명철이가 나를 업고 이 밀림속으로 들어 온 것도, 또한 놈들이 우리가 달려 들어 가던 다리 입구에 신호 장치를 해 놓고 다리 입구에 있는 침목만 디디면 다리 마즌쪽 입구에 있는 수비막에 신호가 울리고 그러면서 탐조등이 비치고 기관총을 쏘게 장치되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놈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우리 빨찌산의 습격에 겁을 먹고 비밀이 이런 장치를 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교를 폭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펄쩍 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명철이는 내가 펄쩍 뛰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였다.

《아저씨 제가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였습니다.》

《아니》나는 머리를 저었다.

《제가 정찰을 똑똑히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놈들이 그런 장치를 해 놓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명철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명철이, 좋아 책임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락심할 건 없어, 두 동무가 오거들

방도해 보자구.》

우리는 군용 렬차를 폭파시키고 적을 유도해 간 두 동무가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두 동무는 오지 않았다.

나의 가슴 속에는 그늘이 지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 없었다. 사실 그랬다. 그 때 두 동무는 우리의 폭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들을 산 속으로 유도해 가다가 한 동무는 놈들의 총탄에 희생되고 한 동무는 심한 부상을 입고 놈들의 눈을 피해 밀림 속에 숨어 있었다.

나의 상처도 보통이 아니였다. 기관총알이 바스고 스쳐 지나간 머리의 타박상에서도, 또 허벅다리의 관통상에서도 피가 흘러 나왔다. 그러나 나는 명철이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픈 것도 참고

《명철이 덕택에 래일이면 걸을 것 같애…》

하고 일어나 앉아 웃어 보였다.

다음날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일어서 걸었다.

《자 보라구, 이젠 걷지 않는가, 두 동무만 오면 이번엔 틀림 없이 그놈의 철교를 하늘로 날려 보낼 수 있어.》

하고 나는 나오지 않는 너털 웃음까지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도록 기다리는 두 동무는 오지 않았다. 나는 더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명철에게 걱정 비슷이 의논을 하였다.

《명철아 두 동무가 지금까지 안 오는걸 보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아저씨의 상처만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상처야 곧 낫겠지, 그런데 이렇게 두 동무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딴 방도를 취해야겠어.》

《아저씨 걱정 마시고 빨리 상처만 나으세요. 아저씨가 딴 방도를 취하시면 그 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명철이는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는 밀림 속을 돌아 다니며 내 상처에 바를 약초와 내가 먹을 음식을 구하느라고 온 종일을 보내군 하였다. 나는 그의 따뜻한 간호로 차차 기운이 회복되였다. 이제는 막대기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상처가 나았다. 명철이는 내가 일어서서 걷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 하였다. 나는 오래'동안 아픔 때문에 이루지 못하던 잠도 제대로 잘 자게 되였다. 밤이 되면 나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잤다.

그런데 어느날밤 잠에 곯아 떨어졌던 나는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 소리에 깜짝 놀라 깨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는 명철이를 찾았다. 그런데 내 옆에 꼭 붙어 자던 명철이가 온데 간데 없었다.

《이 애가?》

나는 이상한 예감에 질려 인차 폭약을 숨겨 둔 풀 숲에 손을 넣었다. 폭약도 간데 온데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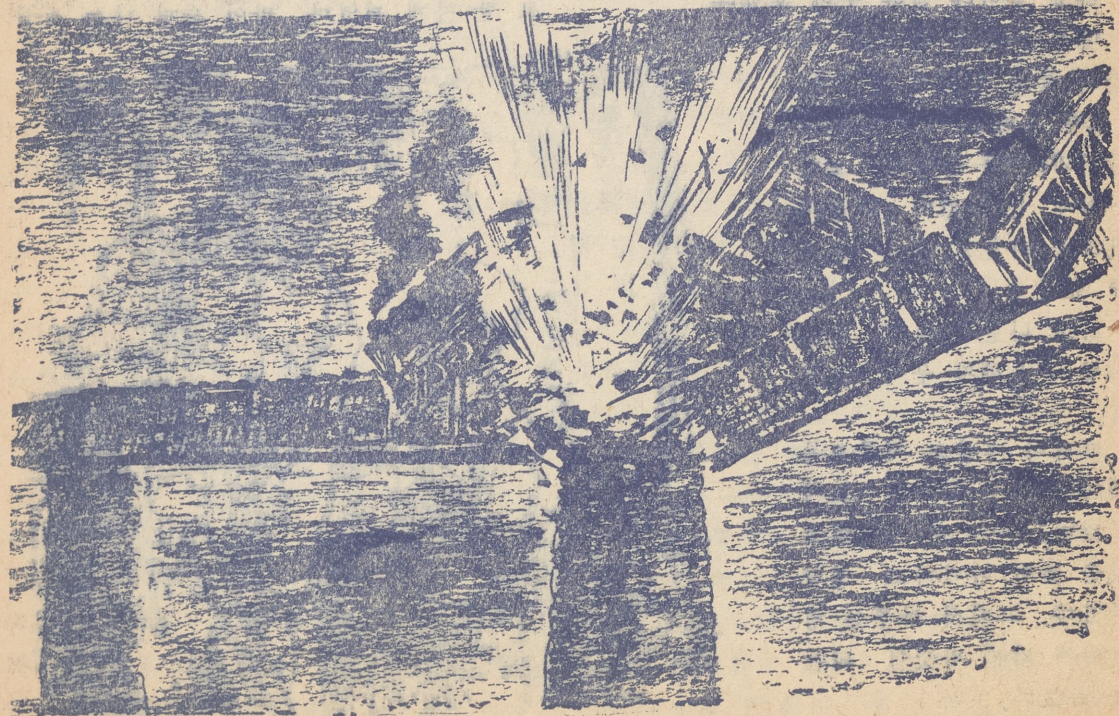
《이 애가…》

나는 재차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다리 아픈 것도 모르고 벌떡 일어섰다. 산넘어에서는 계속 요란한 폭음이 일어 나고 산우에 사뻘건 불'기둥이 섰다. 철교가 녹아나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더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리가 아픈 것도 잊고 폭음이 일어나는 쪽을 향해 막 달리였다. 나는 그 때 그렇게 다친 발로 어떻게 험한 산을 달려 올라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어떻든 내가 철교가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 우에 올라 섰을 때는 철교가 뭉청두 동강이로 나 있었다. 나는 두 동강이가 되여 강물속에 대가리를 처박고 있는 철교를 내려다 보며 요 며칠 동안 명철이의 얼굴이 여니때 없이 긴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강하게 느끼였다.

《그 애가……》

나는 세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처음과는 전혀 다른 충동을 받고 나도 모르게 입밖에 말을 내였다. 나는 내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동지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때마다 걱정말고 어서 상처만 빨리 나으라고 하던 명철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였던가를 알았다.

(그애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런 말을 하였구나!)

나는 해가 퍼질 때까지 앞에 있으면 막 그러안고 싶은 명철이의 그 애틋한 정신에 감동되여 물 속에 처박고 있는 철교를 내려다 보고 서 있었다.

경호대놈들은 개미떼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철교 아래 우를 오르 내리기도 하고 배를 띄워 놓고 강을 오르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군용 렬차들은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서서 기적만 요란스레 울리고 있었다.

나는 한낮이 되도록 명철이가 어디서 나타나지나 않는가 해서 사방을 두루 살피였다. 그러나 명철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좋지 않은 예감을 느끼면서도 명철이가 혹시 우리들이 숨어 있던 밀림 속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해서 도로 산을 넘어 밀림으로 달려 갔다. 그러나 명철이는 거기에도 와 있지 않았다. 다만 명철이가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 두던 조그마한 복수 수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상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은 것이 아니라 아까 폭음을 듣고 일어나 철교 있는 쪽으로 달려 갈 때 어두워서 내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갔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쥐여 갈피를 펼쳤다.

소조장 아저씨, 나는 아저씨의 상처가 빨리 낫기를 매우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저씨 혼자라도 너끈히 밀영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를 혼자 남겨 두고 저는 수행하지 못한 혁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저씨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저씨에게 직접 이런 말을 여쭌다면 아저씨는 또 펄쩍 뛰며 나를 붙잡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 몰래 길을 떠납니다.

아저씨, 요전에는 제 잘 못으로 철교도 끊지 못하고 아저씨에게 상처만 입히였지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래도 틀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저씨 몰래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상처가 빨리 낫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이 복수 수첩을 꼭 장군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철이는 끝까지 혁명 투사답게 싸웠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밀영지까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김 명철 올림

나는 명철이의 수첩에서 이런 글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입'술을 깨물며 수첩을 꼭 그러안았다. 나는 그동안 명철이가 나 몰래 생각한 것을 모르고 있은 것이 안타까왔다. 나는 다시 명철이의 수첩을 펼쳤다. 무슨 살아 올 희망적인 말이 적혀 있지나 안나해서였다. 그러나 그런 말은 없었다. 그런말 대신에 나는 깨알만큼하게 쓴 다음과 같은 글줄들을 읽었다.

철교를 폭파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조장이 부상당하지 않고 내가 부상을 당했던들 얼마나 좋았을가……

원쑤들의 군용 렬차가 철교를 넘어 가는 기적 소리가 또 들리누나! 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우리 동지들의 귀중한 생명을 노리는 원쑤놈들의 포탄이 저 차 속에 그득그득 실려 갈 것을 생각하니 더 견딜 수가 없구나! 조장 동지의 상처만 좀 더 나으면 나 혼자라도 저놈의 다리를 폭파할테다.

그렇게 하자. 암만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은 수는 없다. 밤에 놈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강 상류에 올라 가 거기서부터 헤염쳐 내려오자, 그리고 교각우로 기여올라가 거기에 폭약을 장약하고 폭파시키는 것이 제일 틀림 없을 거다. 이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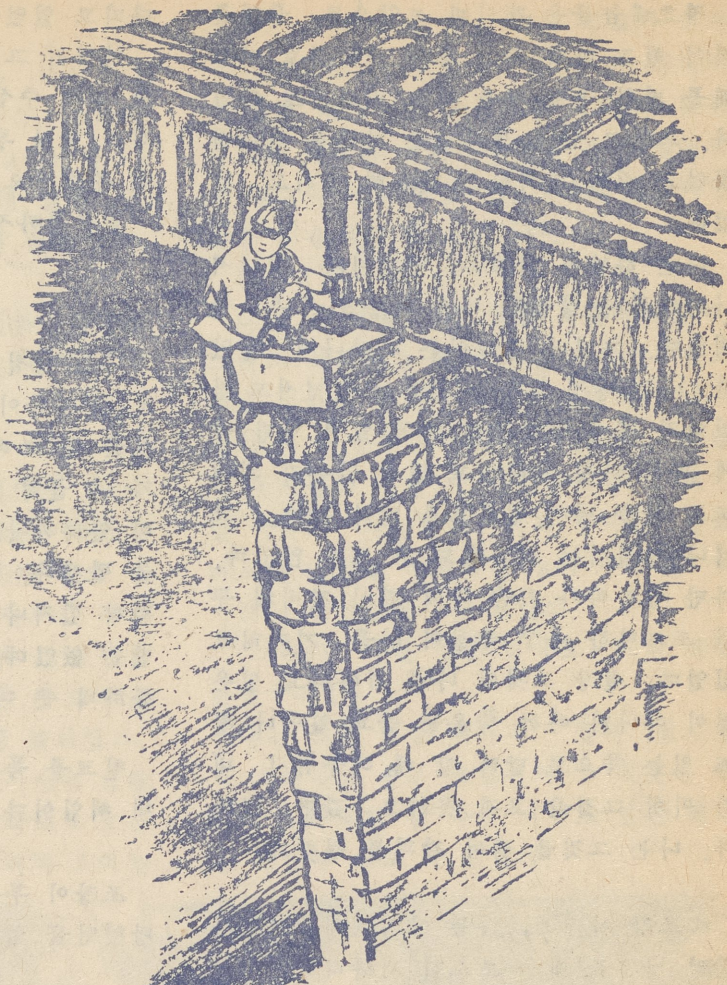
조장 아저씨에게 말할가? 말가? 말하면 못하게 할 것이 틀림 없을거야. 나혼자 하자. 폭파만 시키면 욕하지 않겠지.

나는 이 글을 읽고

《명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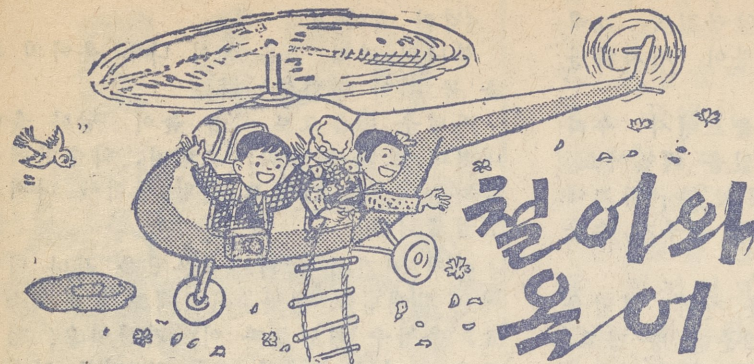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철교 있는 쪽으로 내달리였다. 그러나 명철은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가슴에 불이 일어 명철이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뛰여 다니였다. 그러나 허사였다. 다만 명철이가 어떻게 철교를 폭파하고 희생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듣었을 뿐이였다.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군용 렬차 폭파 사건이 있은 후 왜놈들이 개미떼처럼 달라 붙어서 철교를 지

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한 빨찌산이 철교 가운데에 나타나 놈들의 총알을 맞으면서도 끄덕도 않고 철교를 폭파시켰다는 것이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혁명 임무를 완수하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 명철이의 고귀한 애국 정신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나는 어떤 임무를 받고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그 때 일이 생각나고 귀엽던 명철이의 얼굴이 떠올라 아무리 힘든 일에 부닥치더라도 뒤로 물러 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혁명 임무를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책임성이 용솟군 하는 것이였다.

—끝—

철이— 우리 소년단원들의 붉은 마음을 그대로 담아 농촌에 보낸 《소년호》 뜨락또르의 일 솜씨가 못견디게 보고 싶은 옥이와 나는 해뜨기 전 이른 아침에 《헤리꼽다》를 탔습니다.

얼마 날으지 않아서 통통… 요란한 엔징 소리가 엇갈려 들려 왔습니다.

내려다 보니 빨간 뜨락또르 여덟대가 강서 농기계 작업소 마당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계획은 130%를 넘길테야.》

《그래? 그럼 난 150% 해야지.》

운전수 아저씨들은 저마다 팔을 흔들어 보이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곤 제각기 무연한 벌을 향해 달리겠지요.

《야! 〈소년호〉 뜨락또르다.》

옥이는 막 좋아라고 손'벽을 치며 빨리 내리자고 야단이였어요.

우리가 《헤리꼽다》에서 내렸을 때 마을 쪽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걸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색동저고리를 곱게 해 입은 아이와 무슨 이야긴지 재미 있게 나누고 계셨습니다.

《금아, 저 뜨락또르를 누가 몰지?》

《우리 오빠가 몰죠 뭐.》

《오냐 맞았다. 재작년까지만해도 빨간 넥타이를 매고 다녔지, 마을에 뜨락또르만 나타나면 따라다니느라 야단이드니 인젠 제법 저렇게 뜨락또르를 모는구나.》

할아버지는 금'빛 해'살이 골고루 퍼지는 청산리 취득벌을 가리키며 혼자'말처럼 외우는 것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옥이는 《철아 소년단 생활을 한 운전수 오빠래, 그리고 여긴 수상님께서 오셨다 가신 청산리야.》 하고 속사기며 좋아하겠지요.

우리는 기운차게 갈아제끼며 나가는 뜨락또르 가까이로 뛰여 갔습니다.

《철이와 옥이 아니냐?》 우리를 보자 운전수 형님은 뜨락또르를 세우고 뛰여 내리며 반가이 맞아 주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지난 3월에 있은 전국 소년단 련합 모임 때 기념 수첩에 수표까지 받은 김광석 형님이였거든요.

옥이와 나는 형님의 손을 움켜 잡고 한참이나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이렇게 찾아까지 온걸 보니 너희들이 보낸 뜨락또르의 일 솜씨가 퍽그나 보구싶었던게로구나 자—그럼 먼저 저길 봐, 요 며칠새에 〈소년호〉가 갈아 번진 밭들이야.》

형님은 자랑찬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건너편 동산 마을 쪽을 가리키시겠지요.

갈아 엎은 살진 땅을 고누며 씨뿌리는 조합원 형님, 누나들의 흥겨운 노래 소리가 들려 왔습니따.

옥수수 심기가 한창이였어요. 일찍 뿌린 밀 보리 잎은 벌써 봄'바람에 한들한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청산리에서 일하는 《소년호》 운전수 형님들은 수상님의 말씀을 받들고 한사람처럼 일떠선 조합원 아저씨들과 한마음이 되여 실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거름은 3월에 다 실어냈답니다.

김 광석 형님이 모는 《소년호》만 하더라도 거의 600 톤이나 되는 거름을 날랐대요.

그러면서도《엠, 떼, 에스호》와 함께 50 정보 남짓한 밭을 다 갈아 치우고 논밭갈이에 들어섰다는거예요.

《조합 사람들의 일은 몇곱절 헐해지고 봄갈이는 작년보다 훨씬 앞당겼지, 그래 지금 〈소년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단다.》

형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뛰는 가슴을 누르고 있을 때였어요.

《운전수 오빠 안녕하세요?》 학교에 가는 길인듯한 소년단원 두 동무가 손을 저으며 인사를 보내겠지요.

형님은 그들에게 손을 저어 대답을 보낸 다음 암화 중 학교 2분단 량 명호, 정 춘애 동무들이라는 것을 알려 줬습니다. 두 동무는 매일 《소년호》를 찾아 와선 핸들도 잡아 보고 힘을 합해 스다찡도 돌려 보면서 형님을 돕는답니다. 《자 인젠 뜨락또르에 앉지, 저 끝까지 갔다오자.》 이래서 우린 발을 갈아 나가면서 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년호〉는 〈엠, 떼, 에스호〉와 경쟁까지 걸었단다. 그렇지만 조금도 뒤지지 않아, 한달 후에 와보렴 그 땐 훨씬 앞서 나갈 자신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벌써 시약산 기슭까지 다 갈아 번지고 돌아 오고 있었어요.

《운전수 동무, 좀 쉬여서 하지.》

랭상 모판에 벼씨를 뿌리고 있던 작업반장 아저씨가 다가 오면서 소리쳤지요.

《괜찮아요. 래일까진 다 갈아야겠어요.》

팔소매를 걷우고 이마의 땀을 씻으며 웃는 형님의 얼굴엔 막 기운이 넘쳤습니다.

옥이와 내가 뜨락또르에서 내려 취득벌 끝까지 바라보니 있는 힘을 다해 뛰여도 30분은 좋이 걸릴 것 같았어요. 형님에게 물어 보니 논밭만 60정보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 마음은 자꾸만 줄달음쳤습니다.

《형님 〈엠, 떼, 에스호〉를 꼭 이겨야해요!》

《념려 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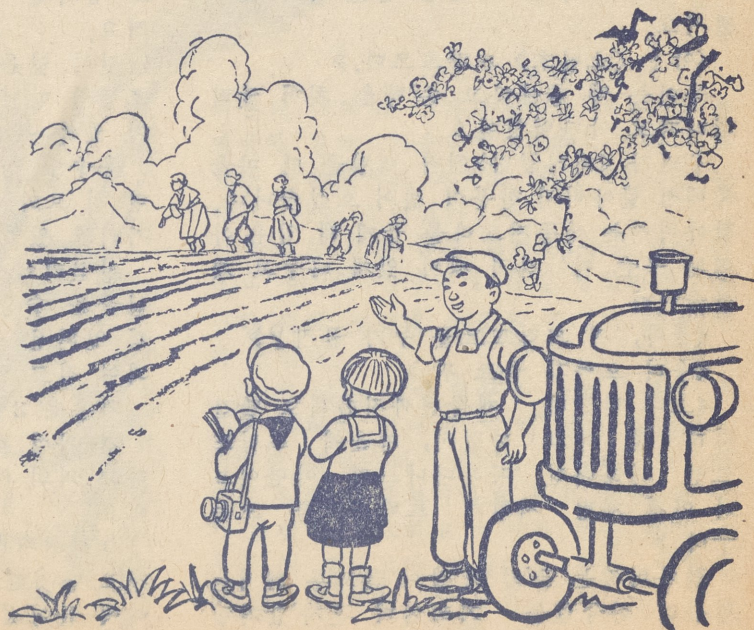
형님의 기름 묻은 손이 나와 옥이의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늘 높이 날아 올라 내려다 보니 태성리, 보림리, 약수리에서 일하는 《소년호》들도 논발 갈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기에 온천을 지나 이번에는 황해남도 연안, 신천에도 들려 《소년호》 운전수 형님들과 이야기했어요. 형님들은 저마다 금년에 모두 800정보 이상씩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 모두의 힘과 마음이 뭉쳐진 《소년호》 뜨락또르 30형제는 어데서나 청산리당 총회에서 하신 수상님의 말씀을 받들고 더 많은 쌀을 내기 위해 떨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솜씨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소년단원 동무들이 짬짬이 모으고 가꾼 파철, 파지, 피마주, 해바라기 등이 얼마나 큰 힘을 내여 농촌 기계화에 이바지되고 있는가를 더욱 똑똑히 알았어요.

소년단원 동무들!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시간을 아껴 금년에도 나라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합시다.

평양 정거장은 려행을 떠나는 손님들로 번잡스러웠습니다. 그 속에는 아까부터 누구를 찾으려 열심히 돌아 다니는 한 소년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는 조급스럽게 사방을 휘둘러 보다가는 또 다시 손님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가군 합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되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개성 관문 고급 중학교 (초급반) 제 5 분단 위원장 오 준자 입니다. 준자는 일요일을 리용해서 평양 계시는 언니네 집에 왔다 돌아 가는 길입니다. 그는 차표를 산 다음 동생들에게 가지고 갈 선물을 사기 위하여 정거장 앞 평양 백화점에 잠간 들렸댔습니다. 바로 준자가 선물을 사들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발뿌리에서 무엇이 뭉클해서 보았더니 웬 꽃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자는 주머니를 열어 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많은 금액의 돈과 공민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천까지 가는 차표 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가, 숙천으로 가는 기차가 떠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자는 빨리 주인을 찾아 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공민증을 펼쳐 사진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50 세 남짓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정거장으로 달려와 지금껏 그 할머니를 찾고 있는것입니다.

준자가 타고 갈 개성행 렬차가 떠날 시간도 인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옳지 분주소에 갔다 맡기고 가자.)

준자는 분주소를 향해 달음질을 치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소년단 규정을 토의하면서 나는 언제 어데서나 웃어른들을 존경하며 누가 곤난에 부닥치면 제 일처럼 돕겠다고 했지.

나는 이번 차로 못가면 밤차로 가도 되지 않는가, 그렇다 숙천행 차가 떠나기 전에 꼭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

준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되돌아섰습니다. 때마침 스피카에서 개성행 렬차가 떠난다고 알리는 안내원 언니의 말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준자의 머리에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안내원실 마이크를 통하여 주인 할머니를 찾자.)

준자는 안내원실로 달려갔습니다. 안내원 언니는 준자의 이야기를 대략 듣고 나서 곧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대합실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숙천행 차표를 잃어버린 김 소제 할머니는 곧 안내원실에 와서 찾아가 주십시요.》

안내원 언니의 목소리는 스피카를 통하여 온 정거장 안으로 퍼져 갔습니다.

안내원 언니는 거듭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자가 다시 대합실에 가서 찾아 보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마침 웬할머니가 한 젊은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안내원실로 들어 섰습니다.

《아니 여기서 내 주머니를 찾았다구요?》

그는 김 소제 할머니였습니다.

《네, 바로 이 학생이 얻어 왔습니다.》

《아니, 네가.》

할머니는 준자의 손을 덥석 그러 잡았습니다.

《그 애는 할머니께 주머니를 찾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떠나는 차까지 놓쳤어요.》

《뭐? 나때문에 차까지 놓쳤다구요. 뉘 자손인지? 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데 있겠니…》

할머니는 준자를 그러 안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시였습니다.

《할머니 숙천행 차 떠날 시간이 인제 6 분밖에 남지 않었어요. 빨리 나가서야 해요.》

안내원 언니는 시계를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의 이름'자도 모르고 헤여지겠수, 난밤차루 가겠수다.》

할머니는 준자의 손목을 잡고 대합실로 나왔습니다.

그날'밤 할머니는 준자보다 앞서 떠났습니다. 준자는 홈까지 나와 떠나시는 할머니를 바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차창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오래도록 손을 저었습니다.

통신원 허 광순

글 김 명욱 그림 오 락삼

영식이는 격분에 찬 주먹을 틀어 쥐고 마산 《도립 병원》을 향하여 뛰였다.

오늘 아침 마산 앞 바다에서 지난 3월 15일 리 승만 경찰놈들이 죽여서 몰래 바다에 쳐 넣었던 김 주렬 소년의 시체가 나타났다.

이 소문이 나자 경찰놈들은 더럭 겁이나서 그 주검을 《도립 병원》으로 가져 간 것이였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랬지만 특히 영식에게는 주렬 소년의 주검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였으나 영식에게는 친 형제가 죽은 것 같이 슬펐고 분했다.

영식이는 부두 로동자인 자기의 형 한 사람을 기둥 같이 믿고 살아왔다. 지난 3월 15일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한 마산 인민 봉기에서 그의 형은 로동자들의 선두에 서서 나갔다. 그날 영식이도 형을 따라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북마산 파출소에 불을 지르고 용감하게 싸우다 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진 형은 《영식아 저 불'길을 보라! 저 불'길은 어느놈도 끄지 못한다… 용감하라! 꼭 아버지와 이 형의 원쑤를 갚으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영식이는 비오듯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보다도 원쑤를 갚겠다는 증오에 찬 눈물이였다. 영식이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형의 시체를 안고 경찰과 싸우는 로동자 학생들 속에 끼여 《리 승만 물러 가라!》고 웨치면서 용감히 싸웠다. 그런 영식에게 김 주렬 소년의 주검이 어찌 남의 일 같겠는가, 그는 병원으로 내달았다. 그의 눈은 리 승만이를 까부시겠다는 무서운 적개심으로 빛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미국놈과 리 승만이를 미워했다.

영식이네는 본래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손'바닥 만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겨우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 그런 땅마저 미국놈들이 비행장을 만드는데 빼앗기고 말았다. 당장 살아갈 길이 막힌 영식의 아버지는 너무도 억울하여 《밭을 돌려 달라》고 사정 하였다. 그런데 괴뢰 경찰놈들은 《미국 사람보고 무슨 버르장 머리냐》고 하면서 사정없이 때렸다.

아버지는 그것이 탈이되여 세상을 떠났다. 집안 일이 이렇게 되자 어머니는 그만 심화병에 들어 눕게 되였다. 엎치는데 덮친다고 영식의 녀동생 영숙이가 밖에 나가 뛰놀다 그 야수 같은 미국놈 자동차에 치워 죽고 말았다.

오래'동안 앓던 몸에 굶기까지 한 어머니는 영숙의 주검을 그러안고 목놓아 울다 울다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영식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까지 빼앗겼다.

돈만 아는 학교에선 그가 가져 오라는 돈을 못낸다고 쫓아내고 말았다. 영식은 앞이 캄캄했다.

세상이 막 싫어나고 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 장례 때문에 형이 집에 왔다.

《영식아 비겁해서는 안된다. 남조선 땅에는 불행한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란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안니?》 형은 남조선의 비참한 사실과 공화국 북반부의 행복한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

《형님 정말 돈 안들어요?》

《돈이 다 뭐냐 공화국에서는 오히려 학교에서 돈을 내 주면서 공부시키고 있단

다.》영식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눈 앞에는 학교에서 쫓겨난 동무들, 깡통을 목에 걸고 거리를 헤매이는 수십만의 고아들, 빌어 먹다 그것 마저 없어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어머니 곁에서 안 나오는 젖을 빨면서 울고 있는 갓난 아기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거리에서 헤매이다 굶고, 앓고, 얼어서 죽어가는 모습이 자꾸자꾸 떠올랐다. 영식은 화가 났다. 막 분해졌다. 이 놈의 세상이 언제나 망하려는지 가슴에서 불뎅이가 치미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그는 붉은 넥타이를 매고 4층집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기를 그려 보았다. 마음 속에 알지 못할 힘이 막 솟아 올랐다.

《형님 남조선 땅은 정말 지옥이예요.》

《그렇다. 영식아 죽음의 땅이다.》

《미국놈 때문이예요. 그 승냥이 같은 놈들과 리 승만을 없애 버려야 해요.》

《그럼, 그러니 죽어서야 되겠니, 그럴수록 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놈을 내쫓고 리 승만이를 까부셔야 한다.》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영식은 이젠 슬프지 않았다.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우리라고 맹세했다. 그의 눈'동자는 미국놈과 리 승만에 대한 증오의 빛으로 불탔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바라보는 무한한 희망으로 빛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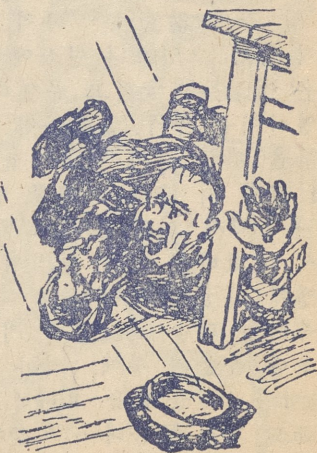
영식은 형을 따라 마산으로 왔다. 그때부터 움막 집에서 형과 같이 살면서 구두닦기 소년으로 되였다.

그들 형제는 굶는 날이 많았고 어떤 날은 영식이가 깡통을 차고 밥 빌라 다니는 날도 많았다.

3월 15일 리 승만의 사람 죽이는《선거》의 날이 왔다. 거리는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봉기로 발깍 뒤집혔다. 《시청》, 《경찰서》, 《파출소》를 짓 부시며 나가는 그 대렬 속에서 영식이는 형과 함께 《협잡 선거를 그만 두라!》,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달라!》고 구호를 웨치면서 돌을 던지며 싸웠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형을 잃고 만 것이다. 인젠 영식은 영영 혼자가 되였다. 그러나 그는 형과 같이 싸운 로동자, 학생들을 볼 때 외롭지 않았다. 《원쑤를 갚자》, 《리 승만을 까부시자.》는 생각만이 머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영식이가 어찌 리 승만이를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영식은 계속 내달았다. 친 형제와 같이 느껴지는 김 주렬 소년이 있는 병원으로 힘껏 내달았다.

병원 앞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마산 시민들이여! 속지 말라!》, 《김 주렬의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는 군중들의 웨침 소리가 하늘 땅을 뒤흔들었다. 군중들은 터지는 파도와 같이 시위 투쟁에로 몰려 나갔다.

《리 승만 물러 가라!》《리 기붕이 죽으라!》,《사람 죽인 놈들 잡아 내라!》고 웨치는 군중들은 경찰의 총칼 앞에 돌로 대항하면서 투쟁을 계속했다. 영식의

눈 앞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형의 얼굴도 떠올랐다.《원쑤를 갚으라! 영식아 끝까지 싸우라!》고 말하는 소리가 영식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영식은 용기를 몇 십배 더 냈다. 나어린 그는 로동자들 속에 끼워 경찰과 싸웠다. 영식은 눈 앞에 보이는 경찰놈들에게 돌을 던졌다. 그놈의 대갈을 깠다.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마산 경찰서를 습격하는 군중들 속에 끼웠다. 이때 《오빠의 원쑤를 갚아 달라!》고 웨치는 김 주렬의 누이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식에게는 동생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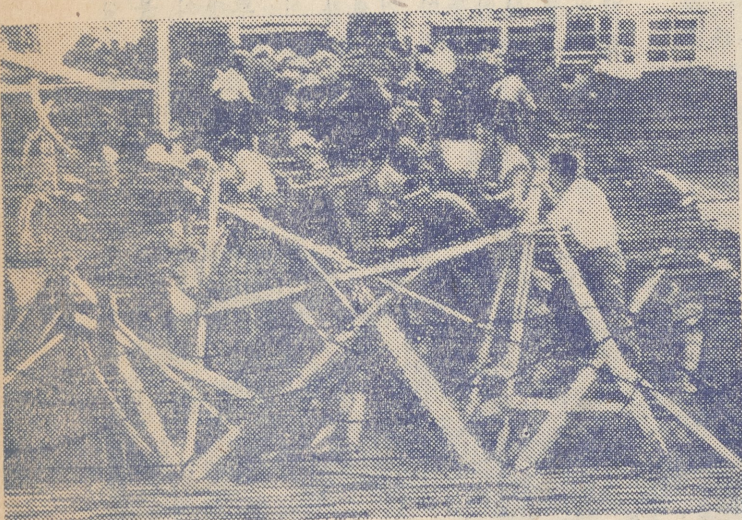
영식은 경찰서 무기고에 뛰여 들었다. 그는 수류탄을 쥐었다. 성난 군중들과 함께 경찰서장을 까 눕히고 20여 명의 경찰놈들을 쓰러 뜨렸다. 속이 시원했다. 경찰서는 부서졌고 경찰서 자동차는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하늘 높이 타오르고 있었다.《저 타오르는 불'길을 보라! 저 불'길은 어떤놈도 끄지 못할 것이다!》 형님이 말하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영식이는 마음 속으로 높이 웨쳤다.《불'길아, 더 타오르라, 그 속에 온갖 나쁜 놈들을 불태워 버려라, 미제도 리 승만이도 모조리 태워 버려라.》 그러자 그에게는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남조선 가는 곳마다에서 들고 일어난 군중들이 웨치는 줄기찬 소리가 들려 오는 것 같았다.《형님, 나는 굴하지 않고 싸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테야요.》 영식은 이렇게 다짐하면서 군중들과 함께 내달았다.

수만 명의 마산 시민들은 형무소를, 《자유당》 마산시 당부 청사를, 괴뢰 마산시 시청을 그리고 리 승만의 졸개들이 들어 앉아 있는 모든 집들을 모조리 까부시며 앞으로 나갔다.

오래'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을 터뜨린 남조선 인민들의 거세찬 이 투쟁의 불'길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다.

승리하는 날까지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까지 힘차게 타오르리라!

보라!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 리 승만 파쑈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선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은 《잡아 가둔 동지를 내 놓아라》라고 웨치면서 거리를 행진 하고 있다.

↑ 원쑤들이 쌓은 방위진을 짓부시고 성난 사자와 같이 리 승만이 살고 있는 《경무대》로 달려 들고 있는 봉기 군중들.

← 시위 군중들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괴뢰 정부의 기관지인 《서울 신문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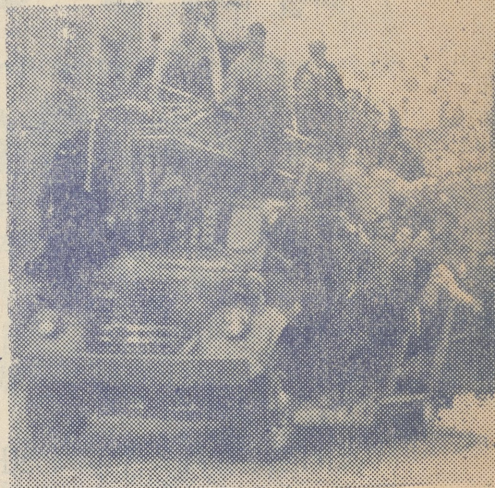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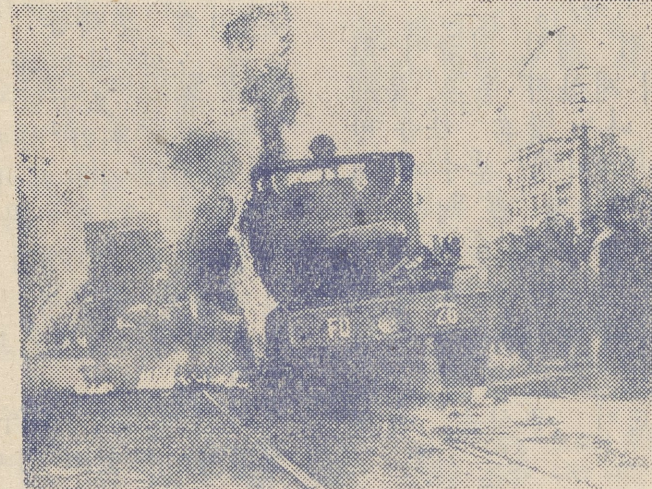
지난 4월 11일 마산 시민들의 대시위에 뒤이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청주, 진주, 수원, 울산등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에서 인민들은 일어났다. 4월 18일과 19일, 20일에는 서울시 학생들과 시민들이 리 승만 도당을 때려 부시며 용감히 싸웠다. 그들은《자유당 본부》, 《특무대》, 《반공 회관》, 서울 신문사 등을 짓부시고 불을 질렀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수개의 파출소를 족치고 태워 버렸고 괴뢰 경찰 무기창과 화약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원쑤놈들과 영웅적으로 싸웠다. 이렇게 되자 원쑤놈들은 한개 사단의 군대와 땅크,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맨주먹인 시민들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조금도 굴함 없이 더 세차게 싸우고 있다. 4월 25일부터 서울에서는 또다시 대시위가 벌어졌다. 26일 아침에 이르러 시위 대렬은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 군중들은 이날 4 대의 괴뢰군 땅크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동차를 빼앗았고 괴뢰 치안국과 시내 경찰서와 파출소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은 다음 불을 질렀다. 또한 시위 군중들은 리 승만의 동상을 넘어 뜨려 쇠사슬로 목을 매어 끌고 다니였다. 그리고 리 승만이 가 들어 있는 《경무대》를 둘러 싸고《민족 반역자 리 승만을 때려 부시라》고 웨치며 싸웠다. 일떠선 인민들의 항쟁에 더는 견딜수 없게 된 리 승만은 26일 괴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 나겠다고 항복했다. 이리 하여 리 승만 정권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

당황해난 미제는 남조선에서 자기네 식민지 통치를 계속 하기위한 갖은 흉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를 물러가게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싸워 이길것이다.

남조선 소년들도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리 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부모 형제들을 도와 용감히 싸우고 있다. 26일 서울시에서는 《국민 학교》 아동 300 여 명이 《군인들이여! 부모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말라!》라고 쓴 프랑카트를 쳐들고 행진하였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서울에서 놈들의 무차별 사격에 의하여 시위 대렬 가운데 있다가 부상을 입은 소년 →

↑ 리 승만의 파쑈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난 서울시 항쟁 군중들은 4월 26일 리 승만의 동상을 넘어 뜨려 쇠사슬로 목을 매서 끌고 다니며 시위 행진했다.

서울에서 시위 군중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던 리 승만 도배의 소방차를 빼앗아 타고 기세 높이 행진하는 시위 군중들 →

4월 19일 서울에서 시위 군중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던 리 승만 도배의 소방차들이 시위 군중들에 의하여 불타고 있다. →

↓ 원쑤들은 리 승만 파쑈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선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그러나 일떠선 서울 시민들은 조금도 굴함 없이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 한다

산수 학습과 나

내가 어떤 힘든 산수 문제라도 척척 풀어 내게된 것은 작년 4월부터였습니다.

지난 학년까지만 하여도 산수 과목은 제일 어려웠고 싫은 과목이였습니다.

그러던 내가 어떻게 산수를 잘하게 되였는가구요?

내가 산수에서 제일 힘들어 한 것은 분수 사칙 계산과 응용 문제 풀이였습니다. 나는 많은 학습 방법을 생각하던 나머지 분수에 대한 응용 문제 풀이를 할 때면 그림과 도표들을 많이 리용했고 또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를 풀때에는 여러 번 문제를 곱씹어 읽고 그 뜻을 똑똑히 안 다음 그림을 그려보며 공식을 세워 보았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응용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가며 몇 번이고 풀어 봤지요. 그리하여 답이 맞아 나올 때마다 그처럼 기쁜 일이 없었어요.

산수에서 도표에 대한 것을 배운 다음부터 나는 신문이나 잡지 또는 협동 조합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나붙는 도표들을 익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수'자들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로력 수첩을 가지고 서로 대조하여 가며 보름에 한번씩 도표를 만들어 방 안에 붙혀 보았지요. 그랬더니 뒤떨어졌던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붉은 줄이 어깨를 나란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또 나는 산수 시간에 어떤 문제를 배운다면 산수 문제집에 있는 련습 문제를 빠짐 없이 풀어 보며 그와 비슷한 련습 문제도 만들어 풀어 보군합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시험 포전에서 생산한 해바라기, 옥수수, 피마주 등이 매 평마다 얼마나 수확되였고 그를 국가에 수매 시킨다면 얼마마한 수입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응용 문제로 만들어 풀어 봤지요.

이렇게되여 산수 과목에 점점 재미를 부쳤고 어떠한 힘든 문제도 마킴 없이 척척 풀게 되였지요.

함북 김책시 망양 중학교 전 윤섭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로어 시간만 되면 미리 겁부터 났습니다. 시간중에 로어 교과서를 읽을 때마다 분단 동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거든요.

《형이 동생에게 뒤떨어지다니.》 나의 1학기 성적을 보신 아버지의 꾸중이였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인민반에 다니는 녀 동생도 고중에 다니는 형님도 다 최우등인데 나에게만 얄미운 3점이 있었답니다. 나는 다음 학기부턴 꼭 로어 과목에 5점을 받겠다고 다짐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는 련습부터 했습니다. 그날 배운 것은 적어도 열번씩 곱씹어 읽었지요.

문학 책을 읽을 때만큼 돼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래서 한달쯤되니 읽는 데는 자신이 생겼지요.

그런데 읽고 내용을 말하는 데는 또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어를 몰랐거든요.

그래 나는 종이가 새까맣게 될 때까지 자꾸만 단어를 쓰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펼치고 읽어 보면서 우리 말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시 단어장을 꺼내서 한번 공부 했습니다.

지금 나는 하루에 다섯개 이상씩 새로운 단어를 외우군 합니다.

나는 3학년이 되면서부터 평양에 있는 삼촌이 보내 준 쏘련 화보책을 다는 모르지만 띠염띠염 읽어 보군 합니다. 그러면 몇 개씩은 아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아는 말이 많아질 때 나는 남 몰래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우리 말을 많이 쉬으면서도 형님과 로어로 말해 보군 해서 어머니를 웃깁니다.

평남 강서군 암화 중학교
3학년 2반 김 월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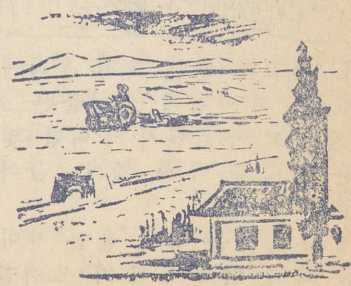
어쩌면 저렇게 빨리도 클가?
나는 나는 알지요.
어서 어서 자라서 기계화된
협동'벌 바라보고 싶어서임을

평남 강남군 당곡 중학교
3학년 전 영기

우리집 뜰안의 백양나무는
지나간 봄철에 내가 심었지.
누가누가 빨리 크나 내기
하자고
나는나는 나무와 약속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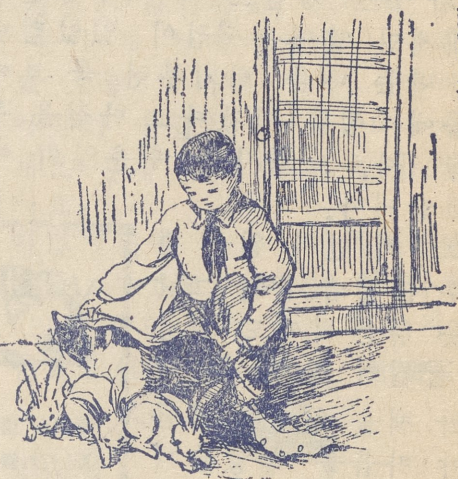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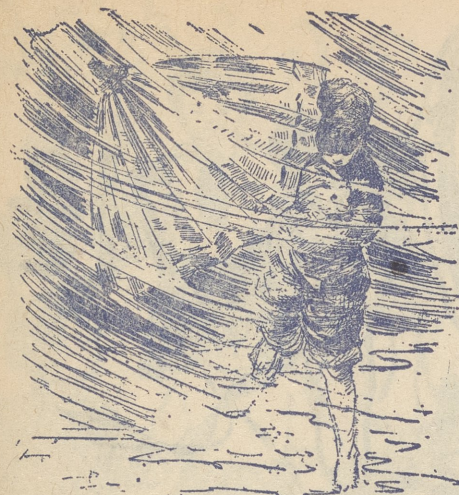
나보다도 작던 백양나무는
어쩌면 저렇게 빨리도 클가?
하루'밤 자고 나면 쑥—쑥
....
지금은 지붕을 넘으려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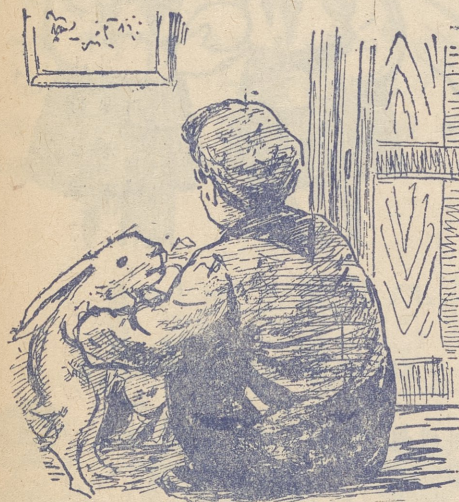
책임성 높은 경호

글 최옥선 그림 리동춘

1. 문 경호 동무는 어머니가 분주히 드나드는 소리에 잠을 깨였다. 어머니는 《비가 얼마나 세차게 퍼붓는지 경호가 탄탄히 만든 토끼 우리 속에서도 토끼가 젖었구만.》하고 혼자 말을 하시면서 토끼를 안고 방으로 들어 오시였다. 이 순간 경호는 자기 분단 토끼들이 비에 맞아 잘 못되지나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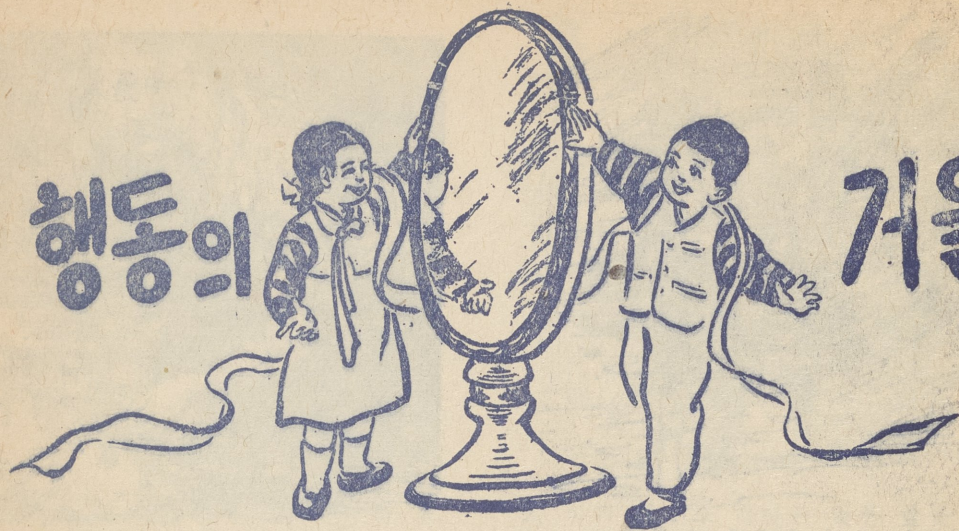
2. 비가 억수로 내리는 밖은 앞을 가릴 수 없이 캄캄하였다. 한 마리의 토끼로부터 150마리를 새끼 내워 학교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 분단의 토끼가 잘 못된다면 동무들이 얼마나 섭섭해 할가? 경호는 어서 학교에 나가 보아야겠다고 바삐 서둘렀다. 어머니도 경호의 뜻을 알고 어서 가보라고 우산을 내주시였다

3. 경호가 분단 토끼 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비'바람에 토끼들은 오돌오돌 떨고 있었고 우리에서 놓여난 몇 마리의 토끼는 시내'물 속에 밀려 들어 가 헤매고 있었다.

경호는 옷을 걷어 올릴 사이도 없이 흙탕물 속에 뛰여 들어 가 토끼를 찾아 헤매였다.

4. 토끼를 찾아 안고 시내'물에서 나온 경호는 어떻게 할지 몰라하다가 문득 언덕 우에 새로 짓고 있는 집이 생각났다. 경호는 급히 그 집을 향해 달려 갔다. 아직 문을 바르지 않은 집이 였으나 한결 아늑 하였다. 경호는 떨고 있는 토끼를 자기 속샤쯔를 벗어 감싸 주었다.

5. 경호는 토끼 우리에 남아 있는 토끼들을 나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토끼들이 비맞을세라 우산을 씌워 날랐다. 150마리의 토끼를 날이 밝도록 이 집으로 날라왔다.

6. 경호는 날라 온 토끼를 한마리 한마리 어루만지며 비'물을 씻어 주고 벼'짚을 모아다 깃을 깔아 주었다. 그런데 물에 빠졌던 엄지 토끼 한 마리가 몹시 떨며 기운을 못차리더니 그 사이에 그만 죽어 버렸다. 경호는 눈물이 글썽해 졌다.

7. 시내'물에서 건져낸 나머지 토끼들을 안고 급히 집으로 달려 온 경호는 따뜻한 아래'목에서 토끼의 몸을 말려 주고 약을 먹였다. 경호는 토끼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다루듯이 보살피였다.

8. 아침 학교에 온 동무들은 분단 토끼 우리를 들여다 보고 토끼가 잃어졌다고 야단 법석을 쳤다. 이때 경호가 집에 가지고 갔던 토끼를 안고 왔다. 경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분단 동무들은 모두 경호를 붙잡고 어쩔줄 모르게 기뻐하였다. 경호에 대한 이야기는 온 학교에 퍼졌다.

(평북 청성군 청수 중학교 단 제 2분단에서)

《어서 조합에 가져 가자.》

《희원아, 웬 닭알이 여기에 있을가? 참 이상한 일이구나? 날짐승 알이 아닌가?》

《아니야 이건 조합 양계장 닭이 이곳에 와 낳은걸 거야.》

《그럼 어서 조합 양계장에 갔다 드리자.》

거울에 비친 이들이 누군가구요? 토끼풀을 뜯으려 나왔던 강원도 원산시 수원 중학교 박 희원, 김 봉림, 허 복실 동무들이랍니다.

《이 돈을 도루 받으세요.》

《판매원 어머니, 이 돈을 도루 받으세요.》

평북 삭주군 수풍 중학교 제2분단 주성자 동무는 국영 상점에서 양말을 사다가 판매원 아주머니가 모르고 거스름 돈을 50전이나 더 준 것을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착한 록화 근위대원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평북 청성군 청수 중학교 록화 근위대원 김 희옥, 리 명화 동무예요. 이들은 학교의 꽃밭과 나무를 잘 가꿀 뿐만 아니라 나무를 꺾는 1 학년 어린 동무들을 모아 놓고 나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습니다.

《한 가마니씩만 더 쌓자.》

《이 시내'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인제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데 좀 낮은 것 같애, 한 가마니씩만 더 높이 쌓자.》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다리를 놓는 소년단원들이 누구들인가구요? 바로 그들은 평양 룡성 중학교 제 6분단 편 구자네반 동무들이랍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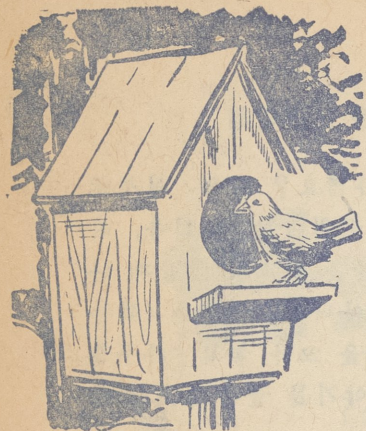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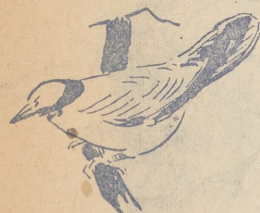
《어머니 아침 연기가 나지 않길래 왔어요. 몹시 아프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밥을 지을래요.》

《나는 의사 선생님을 데려올게.》

이 아름다운 세 동무가 누군지 아세요? 황북 금천군 문명 중학교 리 정연, 리 정단, 리 정옥 동무들이예요.

산림에 리로운 새 들

동 고 비

피 꼬 리

박 새

숲할미새

소년단원들—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월에 만났던 동무들이구먼, 영애두 오구, 용찬이두 오구, 량강도의 손님 창길이두 왔구먼, 그래 약속 대로 나무들을 많이 심었느냐?

영애—네, 그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경제림을 일굴 곳의 지형과 지질을 잘 조사하고 그 곳에 알맞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골라서 심었어요.

창길—벌써 우리 학교에서 심은 황철나무와 뽀풀라 나무에선 움이 텄어요.

척척 할아버지—움, 그럼 인제는 심은 나무들을 훌륭히 자라도록 잘 돌봐 주어야 한다. 그래서 빨리 공업의 원료로 쓸 수 있게 키워 내야지.

영애—심은 나무를 어떻게 돌봐 주어야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제일 주요한 것은 김을 매주는 일이다. 심은 후 한 달 이내에 첫번째 김매기를 진행해야 한다. 김매기를 해 주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서 땅 속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영양분과 수분이 모자라서 자라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첫번째 김매기를 하는 것이 매우 주요하다.

영애—김매기는 몇 번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척척 할아버지—그것은 지대와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김매기는 3년간 계속해야 하는데 첫해에는 평지대, 중지대, 산지대 할 것 없이 각각 3회씩 매주어야한다. 둘째 해에는 평지대에서는 3회, 중지대에서는 2회, 산지대에서는 1회씩 매주고 세째 해에는평지대에서는 2회, 중지대와 산지대에서는 각각 1 회씩 매주면 된다.

심은 후 첫번째 김매기에서는 깊게 혹은 얕게 심은 나무들을 다시 손질해 주어야 한다. 즉 뿌리가 땅밖에 나온 것이 있을 때에는 흙을 덮어 주어야 하고 너무 깊이 심은 나무들이 있으면 제대로 심어 모두 살아 나도록 돌봐 주어야 한다.

용찬—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어린 나무들이 병충해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손 써야 한다.

용찬—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척척 할아버지—주요한 것은 해충을 잡아 먹는 리로운 새들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제 새들이 해충을 없애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놀고 있는 가를 보기로 하자. 먼저 동고비를 들어보자. 이 새는 잎을 썰어 먹는 벌레, 껍질을 파먹는 벌레, 풀빈대, 자벌레 등을 잡아 먹는다. 또 나무 껍질의 틈새를 뚫고 들어 가는 갑충을 파내 먹으며 때로는 땅 우에 내려 와서 땅 속에 있는 나비의 번데기까지 파 먹는다. 다음은 딱딱구리를 들어 보자 이 새는 다른 새들은 잡아 낼 수 없는 벌레 즉 나무 껍질 속이나 나무 줄기를 뚫고 들어간 해충을 잡아 내는 리로운 새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아는 박새도 산림에 아주 리로운 새이다. 이 새는 나무 뿌리에서부터 나무 가지와 나무 잎까지 빈틈 없이 찾아 돌면서 나무를 해치는 각종 벌레를 잡아 먹는다. 이 새는 하루에 자기 몸 무게 만큼한 벌레를 잡아 먹는다. 이밖에 우리들이 흔히 보는 숲 할미새, 나무 발발이, 피꼬리, 개구마리, 쇠솔새, 뻐꾸기, 북솔새 쇠솔딱새… 모두가 산림에 리로운 새들이다. 때문에 이런 새들을 잘 보호하는 것은 곧 나무들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된다.

기철—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리로운 새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새둥지를 만들어다 나무에 걸어 주었어요.

척척 할아버지—참 훌륭한 일을 했구먼 그런데 새 둥지를 만들어다 달아만 주고 돌보지 않고 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그 속에 때로는 말벌, 참새들이 들어 가 사는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제때에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해 둘 것은 아직 소년단원들 속에서 새둥지를 헐거나 새끼를 잡아 내리는 일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철—이번엔 제가 하나 묻겠어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또 무슨 문제인데?

기철—우리 학교에서는 밤나무와 잣나무는 종자를 심었는데 어떤 짐승들이 종자를 파내서 까먹기도 하고 물어 가기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척척 할아버지—그건 들쥐의 장난이다. 때문에 쥐약을 사다가 쥐 구멍이나 들쥐가 싸다니는 곳에 놓아서 잡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맹금류(성질이 사납고 다른 새나 쥐들을 잡아 먹는 새들)들을 피여 오도록 하여라 맹금류는 가름'대에 앉기를 즐겨한다. 그래서 가름'대를 많이 만들어다 꽂아 놓으면 맹금류들이 내려 앉았다가 장난하는 쥐들을 잡아 간다.

기철—많이 배웠어요. 우린 돌아 가면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나무를 잘 가꾸겠어요. 그리고 산림에 리로운 새들을 잘 보호 하겠어요.

척척 할아버지—오냐 그렇게들 하거라.

일동—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색 더구리

개 구 마 리

뻐 꾸 기

나무 발발이

북 솔 새

저 광 이

학교 가는 길!

우리들이 치우고 가자!
산꼭대기 에서 굴어 떨어졌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움직도 하지안느나
어떻게 해서 두 치우고 가야해 바쁜때 1분이라도 자동차를 멈추게 해서는안돼

옳지 알았다 마찰을 감소시키면 돼!

이게 다 물리 에서 배운 지식이야
야 이렇 게 쉬운걸

만세!
참 기특한 애들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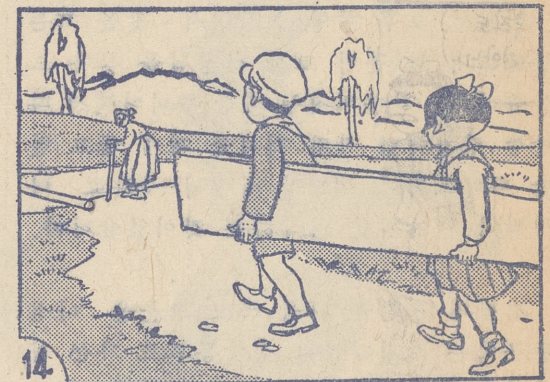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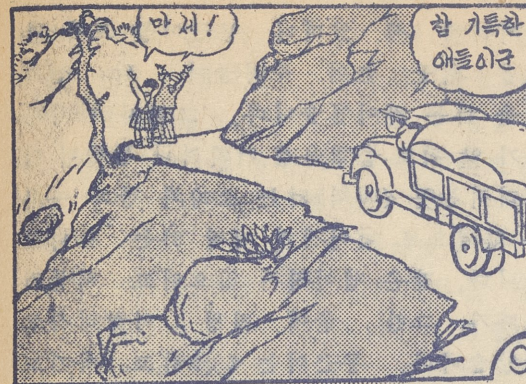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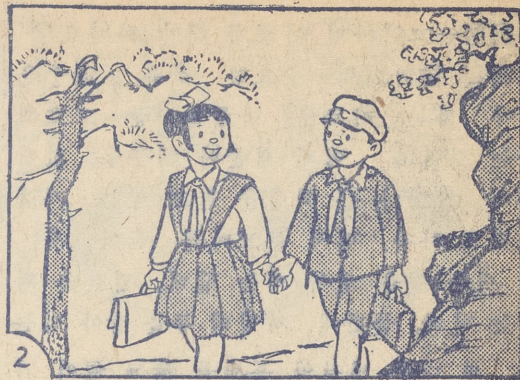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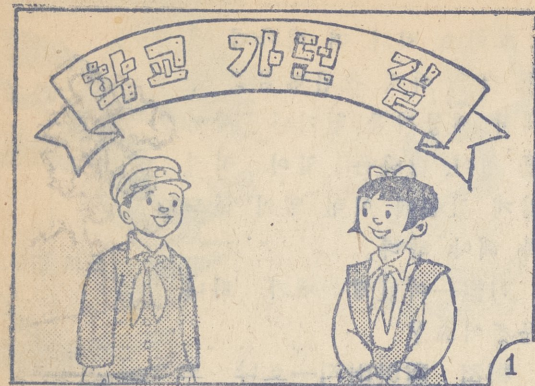
우리 이 지름길로 가자!
그래!

할머니 왜그러세요?
외나무다리 가 되서 어지러워 건너가질 못하 겠구나.

할머니 잠간만!

할머니 건너세요
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데 있노!

이 판자는 아까 그 자리에 도로 가져 다 놓고 가자!

혁띠

—평양시 룡성구역 룡성 중학교 단에서—

글 최 죽산　　그림 최 순천

어느날 오후 국영 농장에서 말을 모는 할아버지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적삼 주머니에서 따발총 탄창처럼 자린 혁띠를 꺼내 들고 한참 바라보더니 《교장 선생님…》하고 나지막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였습니다.

× ×

경남의 우산을 나눠 쓰고 교문을 나선 동근이는 갈림길에서 신궁동으로 가는 경남이와 헤여졌습니다. 그가 합진개 언덕바지까지 다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흠칫하고 못박힌듯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물이 난 개울 복판 깊은 웅덩이에 웬 마차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웬 일일가? 그런데 주인은 어데로 가구?) 사방을 살펴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휙휙 비'바람은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물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참이나 버둥거리던 말은 기운이 진하였던지 얼마간 제자리에 서 있더니 동근이를 보자 앞발을 허공 높이 추켜들며 막 잘기질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마차바퀴가 앞 뒤로 움칠움칠 거리더니 무엇이 이그러지는듯 《삐꺽》하는 소리와 함께 마차가 한켠으로 넘어지기 시작 하는 것이였습니다. 말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가 그만 물에 첨벙 꺼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동근이는 《앗》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급히 개울'가 언덕바지로 뛰여 올라갔습니다. 멀리 집으로 돌아가는 경남의 뒤'모습이 비'발 속에 어렴풋이 보이였습니다.

《경남이!》

목청껏 웨쳤으나 비'바람 소리는 그의 웨침 소리를 삼켜 버리군 하였습니다.

경남이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차에서는 상자들이 물에 밀리우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오이가 물에 둥둥 떠내려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초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오이를 본 동근이는 그것이 대뜸 룡성 육류 꼼비나드로 가는 이곳 국영 농장의 마차임을 알았습니다. 농장 온실에서 딴 오이를 매일 공장으로 날라 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근이에게는 마치 비'바람에 설레이는 버들 가지가(동근아 넌 소년단원이 아니냐. 소년단원은 이럴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말이 죽어가고 오이가 물에 밀려가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는 통조림 공장 누나들이 오이로 먹음직하게 통조림을 만들든 일, 분단 모임때 아이들 앞에서 항상 정직한 소년단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온 일이 주마등처럼 눈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 난 소년단원이다. 요만한 물을 겁내서 나라의 말이 죽어가고 나라의 오이가 떠 내려가는 걸 보고만 섰단 말인가? 말도 살리구 오이도 건져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책가방을 휙 내던지더니 첨벙 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비'바람과 물'살은 그를 막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리를 치는 물'살을 가르며 한걸음 한걸음 마차로 다가갔습니다.

말은 얼마나 물을 먹었는지 희멀건 눈만 슴뻑거리며 기운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동근이는 한참 만에 물 속에서 말고삐를 찾아내서 당겨 보았습니다. 그래도 말은 움적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안장을 풀려고 해 봤습니다. 그러나 좀체로 풀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빈마차라면 말도 헐히 일어서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마차에서 오이 상자를 언덕바지에까지 메여 나르며 빈상자를 물 우에 띄워가며 흩어진 오이를 주어 모았습니다. 얼마나 물 속에서 애타게 뛰였던지 숨이 찼고 목구멍에서는 단김이 확확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와 허리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군 했습니다. 말을 죽인다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상자를 날라갈 때 늙수그레한 사람이 뛰여 오며 《게 웬 사람이요?》 하고 숨가삐 소리치는 것이였습니다. 마차의 주인이였던 것입니다.

《말이 죽어가요. 이거 봐요. 물에 오이가 떠나구요!》 할아버지는 황급히 물에 뛰여 들더니 마차로 다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뒤엉킨 눈으로 동근이를 바라보더니 《원 이렇게 고마운 일이라구, 얘야 어깨로 마차를 떠받들테니 이 말고삐를 좀 당겨 주렴.》하고 부탁하는 것이였습니다. 동근이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쁘드득》하고 말안장 끈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말이 후다닥 일어섰습니다. 동근이가 언덕바지까지 뛰여간 말을 붙잡고 마차에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부락에서 온 세 명의 청년들이 깨여진 상자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등에 말안장을 다시 메우기 시작하였으나 끈이 자꾸 끊어지군 하였습니다. 동근이는 언덕바지로 뛰여 나가 책가방 끈을 풀어 허리를 묶고 할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할아버지, 가죽끈이 있어요. 이거면 되잖을가요?》

《건 무슨 끈이야?》

《가죽 끈이예요.》하며 끈을 내밀었습니다. 가죽끈을 받아든 할아버지는 《얘야 이건 네 혁띠가 아니냐?》하고 저으기 놀라시며 덤덤히 동근이를 바라보시더니 자기의 허리에다 얼른 손을 가져가며 더듬기 시작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가죽 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에 마차를 메우며 여러 번 눈 언저리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깨여진 상자에 못을 박느라고 동근이는 할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혁띠로 하여 마차가 드디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죽띠쯤은 몇 백개를 없애도 아쉬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달구지는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학생이 아니였더라면 내가 큰 일을 칠 번 했구나, 참 학생의 이름은 뭐지?》

《제 이름은 알아서 뭘 하세요.》

동근이는 자기가 한 일이 뭐 장한 일이라고 이름까지 대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동근이의 이런 생각은 몰라 주고 오히려 이름을 안댄다고 노여움까지 내며 끝내 이름을 알아 내고야 말았습니다.

《룡성 중학교에 다니는 양 동근이라구? 그럼 저 여름에 물에 빠진 유치원 아이를 구원한 애가 아니냐!?》

《예》 동근이는 고개를 숙이며 나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 ×

이야기를 끝낸 할아버지는 혁띠를 교장선생님 책상 우에 놓으시며 《이런 기특한 애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슈까, 신문에 낼 아이우다.》하고 몇 번이고 곱씹어 말했습니다.

집고양이와 산고양이

글 리석중 그림 현재덕

고양이와 삵은 그 생김새라든가 그 몸'집이라든가, 그 털'빛이라든가, 그 걸음 걸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비슷합니다.

이름이 달라서 고양이라하고 삵이라 하지 얼른 보아서는 고양이가 삵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삵이 고양이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고양이를 집에서 산다고 해서 《집 고양이》라 부르기도 하고 삵을 산에서 산다고 해서 《산고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목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루는 뒤'산 속에서 숨어 살던 삵이 고양이를 찾아 갔습니다.

《언제나 그립던 집 고양이야 나는 너한테 간절히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우정 찾아 왔단다. 내 얘기를 좀 들어 주려므나,》 고양이는 삵을 친절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게 어서 해 봐라!》

삵은 다정스럽고 상냥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아 고맙기도 해라, 그럼 얘기를 하지, 참 기가막힌 일이란다. 너는 집 고양이요, 나는 산고양이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들 이름이 어째서 이렇게 불리우는지 너는 아느냐? 글쎄 들어 봐라, 우리들은 먼 옛날

한 할아버지에게서 난 친척들이란다. 그 옛날엔 우리들이 다 한 집에서 정다웁게 살았지…아아 하도 원통해서 말이 탁 막히는구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뿔뿔이 갈라져서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어데 있단 말이냐.》

삵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 뜨렸습니다. 고양이는 삵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상 싶었습니다. 그리고 삵의 신세가 하도 가엾어 은근히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산고양이야, 정말 사정이 그렇게 되였다면 참으로 섭섭한 일이구나, 그렇지만 너희들 산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그렇게 됐겠지, 우리들 집 고양이가 너희들을 내쫓기야 했겠니.》

삵은 친절한 고양이의 말을 듣고 너무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집고양이야, 참 고맙기도 해라, 네가 그처럼 동정해 준다면 나는 오늘부터라도 여기 와서 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싶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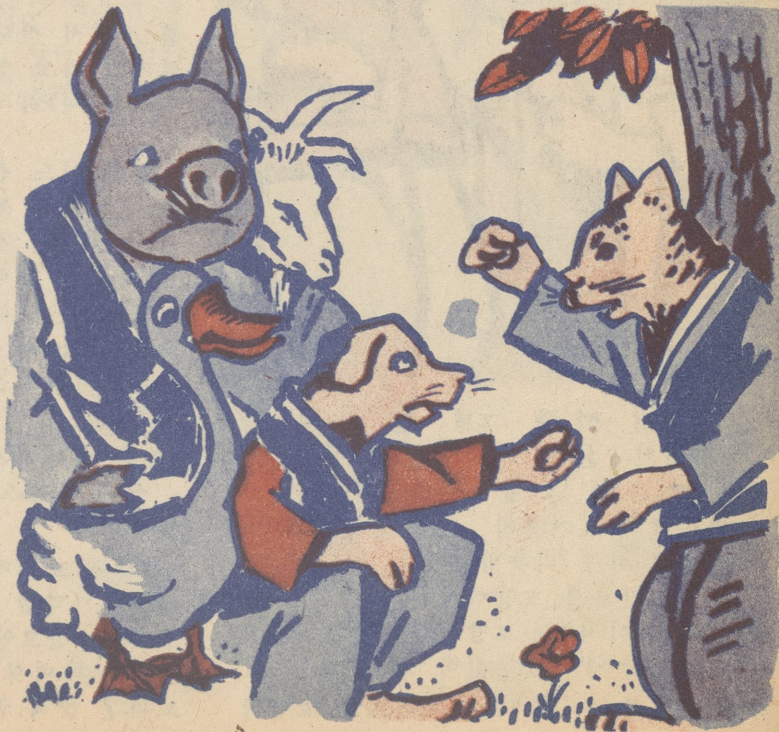
《산고양이야. 나는 언제든지 너를 반겨맞이 하겠다. 오늘부터라도 여기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꾸나.》

친절 한 고양이와 《다정한 삵》은 그 옛날 저희 할아버지들이 정답게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았다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 집에서 사이 좋게 살아 가자고 서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삵은 이 목장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무도 많았습니다. 개랑, 염소랑, 돼지랑, 오리랑, 거위랑, 닭이랑, 모두 정답게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염을 받으면서 재롱을 부리는 병아리가 매일 같이 한 두마리씩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삐용삐용이 또 어델 갔단 말인고?》

《글쎄 말이다. 이러다간 귀신도 모르게 죄다 없어지고 말겠구나.》 정말 원통하고도 억울한 일이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날에 날마다 온통 불안과 공포와 눈물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힘이 세고 날랜 바둑이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모두 힘을 다해서 원쑤놈을 잡아 없애야 한다. 우리들의 목숨은 반드시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

삵이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바둑이의 말을 두던 하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원쑤를 갚아야지 삐용삐용을 잡아 가는 건 틀림없이 여우놈이 하는 짓일거야, 념려말어. 그까짓 놈은 내가 맡아서 지킬테니!》 용감한 거위를 비롯하여 염소도, 돼지도, 오리도, 닭도, 모두 원쑤를 갚자고 굳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중이였습니다. 주위는 먹물을

끼얹은 듯이 캄캄했습니다. 마침 그럴 때에 닭들이 갑작스럽게 《꼬꼬댁! 도적이야 꼬꼬댁! 도적이야》하고 소리쳐 울어 댔습니다. 닭우리 앞으로 시꺼먼 그림자가 얼른 거렸습니다. 닭우리 옆에 숨어서 파수를 보던 거위가 부리나케 달려 들면서 도적놈의 뒤'다리를 물고 느려졌습니다. 도적놈은 빠져 달아 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닭우리 뒤에 숨어서 파수를 보던 바둑이가 번개 같이 덤벼 들면서 도적놈의 어깨를 물어 뜯었습니다. 도적놈은 《아이구 죽는다!》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뺑소니쳐 달아 났습니다.

참으로 끔직하고도 몸서리가 치는 일이였습니다. 만일 잠시라도 때를 노쳤더라면 그들에게 또 어떤 불행이 생겼을는지 모를 일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것은 비명을 올리면서 뺑소니를 친 도적놈이 다름 아닌 바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삵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활하고도 포악한 피에 주린 삵은 교묘하게 탈을 뒤집어 쓰고 평화스러운 이 목장에 숨어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씨가 착한 고양이들은 오늘날도 꼬리를 추켜 들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 갑니다.

그러나 마음'보가 고약한 삵들은 오늘날까지도 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리사이에 꼬리를 감추면서 산으로, 들로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쫄딱 망한 너구리
그림 남현주
너도나도 모두다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동산 꽃동산 행복한 동산 과일 심고 농사지어 오곡백과 무르익는 지상 락원 이루세 헤헤야 디헤야……
해해…… 잘 속여 넘겼지
요거 참 고소하겠는걸… 해해……
옳지 곰이 따를 때에는 옷을 벗어 던지면 된댔지

그럼 쉽시나 빌려 주려마!
너굴아! 어서 밭으로 나가자
아래'동네 알룩이가 빌려갔어
아이구 배야…. 배가 아파서…
혼자 살짝 가서 그놈의 밭을 다 주어 와야지
엄마나!
으흠!
바지로군 에익 또 속았군

에익! 놓쳤군. 분해라
저런 어서 돌아가서 누웠거라
하하… 저 너구릴 봐! 발가벗고 어딜 갔다올가?
밤나무'골 사슴의사한테 가다가 곰에게 불들려 몽땅 벗기웠다
넌 그모양을 하고 어데 갔댔니?
해해해…. 인젠 뜨문뜨문 이렇게 살아야겠군 나무가 없어지면 또 가져다 주겠지. 어서 많이 때야지…

에크!
알몸이 됐으니 이게 꼴이 뭐람
자! 우리 오늘 밭일을 끝내고 돌아갈때 앓는 너구리에게 나무를 한단씩 해다 주는게 어때?
좋아!
좋아!
나무 걱정은 말라! 떨어지면 또 해다 줄게….
방이 차면 안돼. 불을 뜨뜻이 때고 몸을 잘 치료해!
불이야! 불이야! 아이구 이걸 어쩌면담! 불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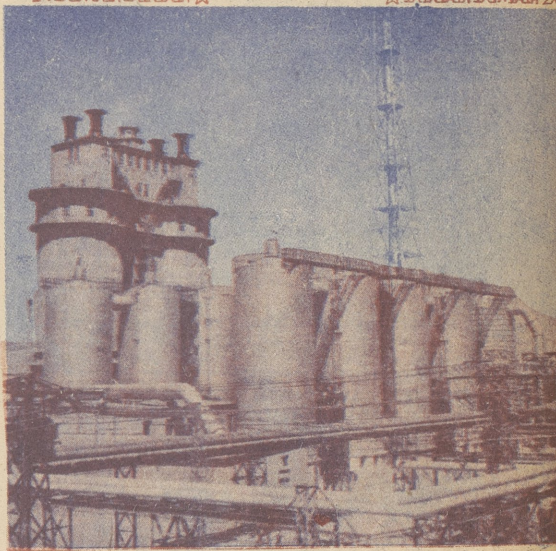
소년단원 동무들! 아래의 사진에 찍힌 것은 무엇이며 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하여 아는 데까지 말해 보시오.

3호 현상 문제 해답

뜨락또르의 이름은 《소년호》입니다.

이 뜨락또르는 우리 소년단원 동무들이 농촌의 기계화를 위하여 《파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해서 마련한 뜨락또르 입니다.

《소년호》 뜨락또르는 모두 30 형제이며 온천, 강서, 신천, 연안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발갈이를 한 누나는 온천 농기계 작업소 리 정숙 누나입니다.

알아 맞친 사람

평남 은산군 천성 중학교 리 동화
평남 평원군 대성 중학교 박 호일
평남 안주군 안주 고중(초급반) 박 정선
황남 배천군 신월 중학교 리 용범
황남 연안군 흥상 중학교 강 문섭
황남 옹진군 송월 중학교 김 응수
황북 수안군 룡포 중학교 정 성렬
황북 황주군 침촌 초등학원 김 호영
황북 신평군 장암 중학교 림 선녀
평양 서성 중학교 전 화일
평양 안산 중학교 문 수옥
평양 상신 중학교 신 금자
량강 풍서군 연두평 중학교 김 명화
량강 신파 초등학원 김 만식
량강 후창군 고읍 중학교 림 춘배
평북 녕변군 송화 중학교 리 종복
평북 운전군 덕원 중학교 리 봉관
평북 철산군 오봉 중학교 정 금자
자강 고풍군 룡당 중학교 김 국현
자강 룡림군 화양 중학교 김 창술
자강 시중군 어뢰 중학교 김 명녀
개성 고려 중학교 한 동균
개성 남산 중학교 고 춘자
강원 창도군 성도 중학교 5분단원일동
강원 평강군 상원 인민학교 김 영수
함북 부령군 구읍 중학교(인민반)박 성자
함북 영안군 상장 중학교 양 대원
함북 청진시 민주 중학교(인민반)림 영호
함남 홍원군 전진 중학교 김 춘일
함남 광천군 광천 중학교 김 재성
함남 신흥군 창서 중학교 리 경숙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5 호 (총 127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182 값 25 전 150,000부발행

오락 놀아 보세요!

물 건너기

도 구

(1) 작은 물병 2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검은 병)
(2) 평평이 1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도 된다. 구멍은 뚫지 않는다).
(3)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 1개
(4) 물병 주둥이를 막을 작은 필림

노는 방법

한개의 물병에다 물을 가득히 넣고 필림을 물병 주둥이에 꼭 맞게 오려서 붙여 두면 병을 꺼꾸로 들어도 물이 쏟아 지지 않는다.

노는 사람은 2개의 병을 하나씩 꺼꾸로 들어서 두병에 다 물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 물이 들어 있지 않는 병에 평평이를 꽂아 놓는다. 그리고 주전자 주둥이를 평평이에다 밧삭 대고 물을 넣는 것처럼 해 보인다. 그 병에 물이 다 찰 수 있다고 짐작될 때에 주전자를 번쩍 들면서 물을 부어서 정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여준다.

다음은 주전자를 놓고 병에 꽂았던 평평이를 꺼내 놓는다. 그리고는 《에잇》하고 소리치고는 빈병을 들어서 이쪽병으로 물이 건너 갔다는 것을 알린다. 그리고 물이 들어 있는 병을 들어 올리면서 몰래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으로 필림을 다쳐서 빈 병에다 물을 쏟아 넣는다.

종이 감추기

도구

(1) 엷은 종이 2장 (《소년단》잡지 규격 절반만한 크기의 종이)
(2) 중절 모자 또는 그 비슷한 도구
(3) 부채 또는 막대기

노는 방법

노는 사람은 놀음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장의 종이를 구겨 동구라미를 만들어 목 뒤나 머리칼속 혹은 저고리 주머니 등에 감추어 둔다. 그리고 책상 우에 모자를 뒤집어 놓고 그 우에 부채나 또는 막대기를 놓아둔다.

노는 사람은 무대에 나와서 종이 한장을 쥐여 가지고 구겨서 동구라미를 만든 다음 오른손의 둘째 손가락과 세째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그 다음 입을 벌리고 그것을 집어 넣는 것처럼 하고 꿀꺽 삼키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는 부채를 쥐는 순간에 그것을 모자속에 떠러뜨려 놓는다.

다음 부채로 미리 종이 동그라미를 감추어 둔 곳을 가리키고 부채는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종이 동그라미를 꺼내서 보이고 다시 폈다가 구겨쥘때에 왼손에 쥐는 척 하면서 (그때에 오른손을 보아서는 안된다) 오른손에 끼운다. 그리고 부채를 쥐는 순간에 동그라미를 떨어뜨리고 부채로 왼손 주먹을 가리키면서 손을 편다.

과학 환상 만화
참 좋구나
그림 홍 종호
(제4
아동 궁전에서 나온 순남이와
이는 거리를 구경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
니다.
난 저 만년필식 로케트가 마음에 들어 그러구 저 올라서기만하면 걷지 않아도 제갈데로 갈수 있는 자동식 인도가 좋아....
저것 좀 내려다 봐! 별이 별게 다 있구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군 없지 넌 어느것이 제일마음에 드냐?
공중 최대 급행
참 편리하군!
잠자리 처럼 날아가는구나
만년필식 로케트가 편리하군
빠르군!
구급차요
유치원에 늦지 않겠니?
우리는 휴가를 받고 야영을 갑니다
어데로 가요?
저것이 테레비 존 차로군...